

양현종 KIA서 1년 더 뛴다...22억5천만원 재계약



계약금 7억5천·연봉 15억...시즌 후 재협상·해외 타진

‘4년 최고액’·‘FA 출혈’ 부담 압박 구단 한숨 돌려

평행선을 달리던 KIA 타이거즈와 양현종이 ‘1년 계약’으로 접점을 찾았다. KIA 타이거즈가 20일 오후 서울 모처에서 양현종과 계약 기간 1년에 계약금 7억5000만원, 연봉 15억 등 총 22억 5000만원에 FA 계약을 맺었다.

지난 10일 양현종이 해외 진출 대신 KIA 잔류를 선언한 뒤 진척이 이뤄지지 않던 계약은 결국 여러 안을 두고 협상을 벌인 끝에 1년이라는 ‘기간’에서 조율이 됐다.

KIA는 이번 스토브리그에서 ‘집토끼’ 나지완을 40억에 잔류시킨 뒤 100억 벽을 깨고 삼성에서 최형우를 영입하면서 이미 140억이라는 거액을 투자했다. FA 시장 개장과 함께 양현종이 해외진출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였던 만큼 일단 확실한 카드를 잡는데 집중을 했던 상황이다. 그러나 양현종이 잔류 방침으로 급전회하면서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기준점이 FA 사상 역대 최고액이 되면서 KIA의 부담이 컸다. 여기에 내구성에 대한 고민도 ‘4년 최고액’에 대한 부담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양현종은 올 시즌 200이닝을 소화하기는 했지만 어깨 상태가 완벽하지 않다. 여기에 KIA의 또 다른 FA 대어 윤석민까지 고질적인 어깨 통증으로 고전을 하면서 구단 입장에서는 신중하게 접근을 할 수밖에 없던 상황이다.

내년 시즌이 끝난 뒤 양현종은 다시 협상 테이블을 차릴 수 있다. 양측 모두 ‘원원’이다.

이번 겨울 FA 시장에서 출혈이 컸던 KIA는 한결 두둑한 자금을 가지고 협상에 나설 수 있다. 양현종도 1년의 시간을 통해 자신의 진가를 발휘하고 소원했던 해외진출의 꿈에 다시 도전하거나, 더 유리한 고지에서 KIA와의 협상을 끌고 갈 수 있다.

현종까지 선발진 계산에 넣게 되면서 내년 시즌을 대권 도전의 해로 삼게 됐다. 계약 마지막해인 앞둔 김 감독 입장에서는 구단의 통근 투자에 응답을 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양현종은 계약을 마친 후 “내 자신을 KIA 타이거즈와 나눠 생각해보는 적 없다. 해외리그 도전이 아니라면 당연히 KIA에 남을 거라 마음먹었고, 여러 가지 조건을 검토해 1년 계약을 맺었다”면서 “내 결정을 믿고 따라준 아내에게 미안하면서도 고마운 마음을 전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고등반 팬 여러분께 격정을 꺼져 드리 죄송하게 생각하며, 착실하게 몸을 만들어 올 해보다 더욱 강력한 모습을 보여드리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한편 광주 동성고를 졸업하고 2007년 KIA 유니폼을 입은 양현종은 올 시즌 31경기에서 200.1이닝을 던져 10승 탈삼진 146개 평균자책점 3.68을 기록했다. 올 시즌 10승을 찍으면서 팀 좌완 최초 3년 연속 두 자릿수 승수 기록을 작성했다. 양현종은 통산 87승, 1051탈삼진 평균자책점 3.95를 기록 중이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광주FC, 프랜차이즈 스타 3총사 영입

나상호·박형민·임대준

광주 FC 유스 출신 프랜차이즈 스타 3인방이 ‘기회의 땅’을 밟는다.

광주 FC가 우선 지명선수로 금호고 출신의 공격수 나상호(20·단국대), 미드필더 임대준(22·건국대), 골키퍼 박형민(22·단국대)을 영입했다.

가장 큰 관심을 받는 선수는 나상호다. K리그 U-18 유소년 리그에서 차세대 골잡이로 두각을 나타낸 나상호는 ‘2013 아디다스 올인 챌린지리그’ 득점 1위(13골), 공격포인트 1위(13골 7도움)를 기록했고, ‘2014 아디다스 올인 K리그 주니어’에서는 최우수선수상과 득점왕, 공격포인트 1위를 휩쓸며 금호고의 우승을 이끌었다.

나상호는 활발한 움직임과 드리블 실력으로 공간 침투능력이 뛰어나고, 날카로운 슈팅과 뛰어난 골 결정력도 갖추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단국대에서도 ‘단대 마신건’으로 통할 정도로 탁월한 기량을 보여주면서 2학년을 마치고 일찍 프로에 뛰어들게 됐다.

임대준은 광주 월곡초를 거쳐 금호고를 졸업할 때까지 광주에서 프로축구 선수의 꿈을 키운 ‘광주의 아들’이다.

지난해 고향에서 열린 2015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대표팀으로 나서 은메달을 목에 건 임대준은 조별 예선 마지막



나상호

박형민

임대준

경기에서는 주장완장을 차고 대표팀을 이끌기도 했다. 정확한 패스를 통한 공수조율 및 위치선정이 장점이다.

골키퍼 박형민은 광주의 창단 첫 유스팀 국가대표 타이틀을 가지고 있다. 박형민은 광주의 창단 다음해인 2012년 U-19 청소년 국가대표팀에 선발돼 SBS컵 국제전대회, 스페인 발렌시아 U-20 국제전대회에 참가하며 맹활약을 했다. 제18회 백운기 전국고교축구대회에서는 무실점 선방쇼를 펼치며 금호고 우승의 수훈감이 됐다.

190cm의 장신인 박형민은 제공권이 좋고, 정확한 킥과 판단력, 반사 신경까지 두루 갖춰 골키퍼로서 완벽한 조건을 갖췄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광주 관계자는 “광주는 신인선수들을 기반으로 팀을 이끌어 가기 때문에 유망주 발굴에 큰 공을 들이고 있다. 올

시즌 베스트11에도 신인선수가 4명 이상 포함됐다”면서 “이번 우선 지명 신인선수 영입으로 유스(금호고) 출신 선수가 5명으로 늘었다. 고향의 프랜차이즈스타로 2017시즌도 맹활약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올 시즌 광주는 특급 신인 윤보상(골키퍼)을 중심으로 새로운 전력을 구축하면서 지난해에 이어 K리그 클래식 잔류를 이루냈다. 금호고 출신의 조주영도 ‘조커’로 만점 활약을 하며 젊은 피의 한 축을 구축했다.

말한 신인들의 산실인 광주는 기량을 마음껏 펼 수 있는 ‘기회의 땅’이기도 하다. 잊혀져 가던 이를 정조국도 광주를 무대 삼아 재기에 성공, 올 시즌 득점왕은 물론 생애 첫 MVP 트로피까지 거머쥐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2017 KPGA 투어 확정 박지성 절친 테베스 ‘호날두 2배 연봉’

해피니스 호남오픈 등 신설

한국프로골프(KPGA) 투어가 20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15개 대회 개최 일정을 발표했다.

2016년 13개 대회를 개최한 KPGA 투어는 내년에는 기존 2개 대회가 열리지 않지만 4개 대회가 신설됐다고 설명했다. 새로 열리는 대회는 해피니스 송학건설 호남오픈, 다이내믹 부산오픈, Only 제주오픈, 지스윙 메가오픈 4개다.

협회 관계자는 “확정된 대회 이외에도 3개 대회 개최를 추진하고 있어 최대 18개 대회로 늘어날 수 있다. 잔여 대회 일정은 내년 1월 확정하겠다”고 말했다.

시즌 개막전인 동부화재 프로미 오픈은 내년 4월 20일, 내셔널 타이틀 대회인 한국오픈은 내년 6월 1일에 열린다. 내년 6월 8일 경남 남해의 사우스케이프 오너스 클럽에서 개막하는 대상트 코리아 먼싱웨이 매지플레이는 올해보다 2억원 오른 10억원의 총상금을 내걸어 내년 총상금 10억원 이상의 대회는 모두 6개가 됐다.

/연합뉴스

박지성 절친 테베스 ‘호날두 2배 연봉’

중 상하이 선화와 2년 953억원 계약 임박

박지성과 절친한 사이로 익숙한 아르헨티나 대표팀 출신 공격수 카를로스 테베스(32)가 ‘연봉 대박’을 터뜨릴 것으로 보인다.

테베스는 최근 중국 슈퍼리그 상하이 선화로부터 엄청난 금액의 러브콜을 받았다.

미국 CBS스포츠 등 외신은 20일(한국 시간) “테베스가 받은 조건은 주급 76만 2000달러(약 9억8000만원)”라며 “이는 크리스티아누 호날두(레알 마드리드), 리오넬 메시(FC바르셀로나)의 몸값보다 두 배 이상 많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인디펜던트에 따르면 현재 호날두는 37만9782달러(약 4억5247만원), 메시는 26만6368달러(약 3억1700만원)의 주급을 받고 있다.

미국 CBS스포츠는 “테베스가 세계에서 가장 많은 주급을 받게 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라고 전했다.

테베스는 상하이와 계약 기간 2년에 도

장을 찍을 것으로 보이는데, 2년간 예상 수입은 약 8000만달러(약 953억12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CBS스포츠는 “최근 몇 년간 중국 축구 시장의 흐름을 봤을 때, 테베스의 소식은 그리 놀랍지 않다”라고 덧붙였다.

테베스는 지난 2007년부터 2009년까지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서 뛰었고 이후 맨체스터 시티, 유벤투스(이탈리아) 등을 거쳤다. 지난해엔 친정팀 아르헨티나 보카 주니어스로 복귀해 선수 생활의 황혼기를 고향 팀에서 지내려 했다.

테베스는 19일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 보카 지구 라 봄보네라에서 열린 CA골프과 경기를 마친 뒤 이적을 만류하는 팬들을 보며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영국 매체 미러는 “경기 후 몇몇 팬들이 그라운드에 난입해 테베스 앞에서 무릎 꿇고 중국으로 이적하지 말라고 애원했다”라고 전했다.

/연합뉴스

전남, 올림픽 예비명단 임민혁 FA 선발

신인 5명 계약

전남 드래곤즈가 2017년 전력 보강을 위해 5명의 신인선수를 선발했다.

전남은 2016 리우올림픽대표 예비명단에 뽑혔던 고려대 임민혁을 비롯한 광운대 최재현, 영남대 김현태 이상 3명을 자유계약선수로 선발했다. 또 전남 유스 출신으로 우선 지명 이후 단국대에서 경험을 쌓은 우측 수비수 이유현과 광양제철고 졸업예정인 김성주가 프로에 합류한다.

임민혁(22·186cm/79kg)은 민첩성과 탄력성이 뛰어나고 수비수들을 리딩하는 능력이 탁월한 골키퍼이다. 1학년이었던 2014년에는 고려대 주전 골키퍼로 50회 전국중체대학축구연맹전 겸 덴소컵 선발전 우승을 이끌었다. 임민혁은 안정적인 경기운영과 멋진 선방으로 골키퍼상도 수상했다.

최재현(22·184cm/77kg)은 좌측수비



임민혁

최재현

김현태

이유현

김성주

수로 높은 타점을 이용한 헤딩력과 공간 감각능력이 뛰어나며, 몸싸움 능력이 탁월하다. 또한 지구력과 체력이 좋고 빠른 발을 이용한 공격 가담 능력에서 좋은 평가를 받는다.

김현태(22·187cm/78kg)는 정확한 패싱과 킥을 갖춘 수비형 미드필더로 2016 전국중체대학축구연맹전에서 영남대를 우승으로 이끌며 최우수선수상을 수상했다. 2016 제13회 덴소컵 한일대학축구 교류전 대표로도 선발됐다.

이유현(19·180cm/72kg)은 전남 유스 출신으로 테크닉과 순간 돌파력뿐만 아니라 프리킥 능력이 좋은 우측수비수로

연령별 대표팀을 두루 거친 전남의 기대주다. 2016 U-19 수인 컨티넨탈컵에서 이란과 잉글랜드전에서 연속골을 기록하며 존재감을 드러냈다.

광양제철고에서 바로 프로로 입단하는 김성주(18·175cm/68kg)는 측면과 최전방을 소화할 수 있는 공격수로 드러났다. 공간침투, 마무리 능력이 뛰어나다. 2017년 1월 U-19세 대표팀으로 독일 원정에 나서나.

신인선수 5명은 1월 4일 선수단에 합류해 본격적인 프로무대 적응을 시작한

다. /광양=박영진기자 pyj4079@kwangju.co.kr